



보도	2024.6.14.(금) 석간	배포	2024.6.13.(목)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양유형	(02-3145-8050)
		담당자	선임조사역	안상현	(02-3145-8052)

## '24.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1. 개 요

□ '24.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1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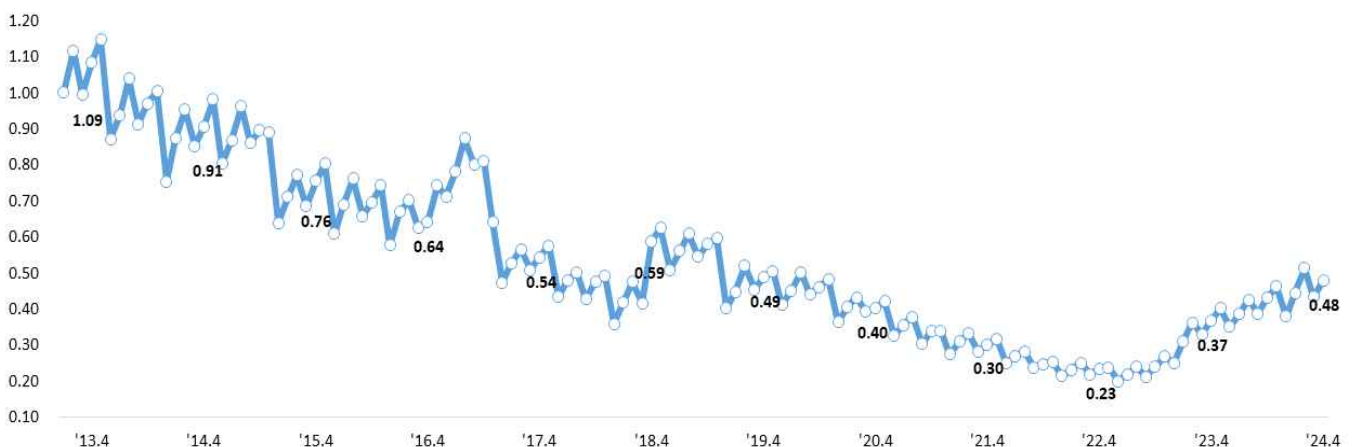
○ '24.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6조원)은 전월(2.4조원) 대비 **0.2조원 증가** 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5조원)는 전월(4.2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 '22.4월 )	( '23.4월 )	( '23.11월 )	( '23.12월 )	( '24.1월 )	( '24.2월 )	( '24.3월 )	( '24.4월 )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	0.9	1.8	2.7	2.2	2.9	2.9	2.4	2.6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	0.5	0.9	2.0	4.1	1.3	1.3	4.2	1.5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	0.4	0.9	0.8	△1.9	1.5	1.6	△1.8	1.1

○ '24.4월중 신규연체율('24.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3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8%) 대비 **0.03%p 상승**]

\* 신규연체율(%) : ('23.4) 0.08 → ('23.12) 0.10 → ('24.1) 0.13 → ('24.2) 0.13 → ('24.3) 0.11 → ('24.4) 0.12

###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13.1월~'24.4월)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4.4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4%)은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39%) 대비 0.15%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0.11%)과 유사한 수준  
[전년 동월말(0.09%) 대비 0.02%p 상승]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상승  
[전년 동월말(0.46%) 대비 0.20%p 상승]
  -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51%) 대비 0.19%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말(0.41%) 대비 0.20%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40%)은 전월말(0.37%)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34%) 대비 0.06%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말(0.21%) 대비 0.05%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상승 [전년 동월말(0.67%) 대비 0.12%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4.1월~’24.4월)	’21.4월	’22.4월	’23.4월 (A)	’24.2월	’24.3월 (B)	’24.4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40	0.28	0.39	0.59	0.48	0.54	0.15	0.06
대기업		0.39	0.22	0.09	0.18	0.11	0.11	0.02	0.00
중소기업		0.40	0.29	0.46	0.70	0.58	0.66	0.20	0.08
중소법인		0.55	0.37	0.51	0.76	0.61	0.70	0.19	0.09
개인사업자		0.23	0.19	0.41	0.61	0.54	0.61	0.20	0.07
가계대출		0.19	0.18	0.34	0.42	0.37	0.40	0.06	0.03
주택담보대출		0.12	0.11	0.21	0.27	0.25	0.26	0.05	0.01
가계신용대출등		0.33	0.35	0.67	0.84	0.73	0.79	0.12	0.06
원화대출계		0.30	0.23	0.37	0.51	0.43	0.48	0.11	0.05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24.4월 말 연체율(0.48%)은 전월말(0.43%) 대비 0.05%p 상승하였으나,

○ 전월 대비 상승폭은 '24.1월(+0.07%p) 및 '24.2월(+0.06%p)에 비해 소폭 둔화

※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3월말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8%p 하락)

구 분	'23.7월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23.12월	'24.1월	'24.2월	'24.3월	'24.4월
연체율	0.39%	0.43%	0.39%	0.43%	0.46%	0.38%	0.45%	0.51%	0.43%	0.48%

○ 또한, '24.4월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19.4월 0.49%)과 유사한 수준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음

\* 코로나19 이전 10년('10년~'19년) 평균 연체율은 0.78%

○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여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